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와 직장근무자의 가사노동 시간관리전략에 관한 연구*

A study on housework time management strategies
between married female home-based workers and on-site workers

인제대학교 가족·소비자학과
조교수 김효정

Dept. of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Inje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Kim, Hyochung

〈 목 차 〉

I. 서론	IV. 연구결과
II. 선행연구의 고찰	V. 결론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housework time management strategies between married female home-based workers and on-site workers, and found out the factors affecting the housework time management strategie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165 married female home-based workers, and 292 married female on-site workers in Pusan and Kyungnam province, by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Frequency distributions, Cronbach's alpha, t-tests, Pearson's correlation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by SPSS/PC+.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Married female home-based workers more used obtaining additional help and personal time reallocation than married female on-site workers.

2) For married female home-based workers, educational attainment and occupation were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housework time management strategies, and for married female on-site workers, employment hours per week and existence of elders/disability within the family were important variables.

◆ key word: 재택근무자, 가사노동 시간관리전략

* 이 논문은 1998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I. 서론

개인과 가족의 욕구충족을 위해 가정 내에서 행해지는 가사노동은 인간생존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노동이다. 전통적으로 남편과 아내는 각각 고유의 성에 따라 가족 내에서 자신의 고유영역을 갖고 있어, 가족의 경제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남편의 영역으로, 일상적인 가사노동을 행하는 것은 아내의 영역으로 여겨왔다. 그러나 가족구조와 가치관·생활양식의 변화, 경제생산규모의 확대 등으로 직장에서의 남녀간의 역할공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 내에서는 남녀간의 역할공유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부인이 취업한 경우에도 남편의 가정 내에서의 역할수행은 크게 증가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많은 취업 기혼여성들은 가사노동과 시장노동의 병행에 따른 이중부담을 갖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특히 우리 나라의 취업주부는 시간갈등을 긴장갈등보다 더 많이 경험하며, 다른 영역에 비해 가정생활영역에서 갈등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구혜령, 1991; 한경미, 1991). 이는 취업주부가 자신이 수행해야 할 가사노동에 비해 취업으로 인한 절대적인 가사노동시간의 부족으로 실제 가사노동을 수행하는데 시간갈등을 느끼며, 또한 이러한 객관적인 시간의 부족으로 주부 스스로 바쁘다거나 서둘러야 한다는 등의 느낌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시간제약을 지각하게 되는 것이다(장윤옥, 1992). 따라서 취업주부는 이러한 시간제약을 극복하기 위하여 좀더 시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거나 절약하기 위한 시간관리전략을 사용하게 된다.

현재까지의 가사노동 시간관리전략에 관한 연구들은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의 시간관리전략을 비교하거나, 취업여성의 경우 직업지위에 따른 시간관리전략에 대해 초점을 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최근에 가정과 직장이라는 양립의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기혼여성들이 가정생산 활동과 소득창출 활동이 같은 공간에서 수행되는 재택근무에 종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재택근무에 관한 국외의 몇몇 연구에 의하면 재택근무 특성상 가사일

과 작업일의 경계가 모호하여 여성 재택근무자는 가사일로 인한 작업 중단 및 시간부족 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Stafford, Winter, Duncan, & Genalo, 1992), 기혼여성 재택근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가사노동 시간관리전략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재택근무는 기혼여성에게 소득창출 기회 및 가사노동 수행의 양립이라는 이점을 제공하고 있기는 하나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겪는 시간갈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취업주부의 가사노동 시간관리 전략을 재택근무자와 직장근무자로 구분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보고자 한다. 적절한 갈등대처전략이 역할갈등을 감소시키고 더 나아가 가족의 복지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때(구혜령, 1991), 본 연구를 통해 직장근무자와 재택근무자와 같은 취업주부가 시간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시간관리전략에 대한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취업주부 가족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II. 선행연구의 고찰

1. 가사노동의 시간관리전략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1일 24시간 동등하게 부여된 객관적이며 보편적인 자원이다. 그러나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축적될 수 없는 제한적인 자원이기 때문에 더욱 희소하고 값비싼 자원이 되며, 특히 여러 역할수행을 위해 시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간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시간갈등은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는데서 오는 역할과중으로 시간제약이나 시간부족을 초래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여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총시간 요구량이 많아 시간갈등이 일어나는 경우이다. 또한 시간갈등은 직업일과 가정에서의 일, 그리고 개인생활과 같은 다른 역할들의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시간의 양이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시간갈등이란 다중역할에서 시

간의 총요구가 너무 많아 역할수행을 적절히 할 수 없거나, 한 역할을 수행하는 동안 동시에 다른 역할의 수행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 역할이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해 발생하는 시간부족에 대한 심리적인 느낌이라고 할 수 있다(이승미, 1989).

특히 취업주부의 경우 시간갈등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시간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시간관리전략을 사용하게 된다. Seiwert(1993)에 의하면 시간관리란 시간을 가장 효과적인 형태로 사용하고 자신의 인생에 긴장과 이완을 주는 바른 기술을 일상생활에서 효과적으로 계속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한경미(1991)는 시간이란 다른 자원들처럼 생활하는데 필요한 수단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시간에 쫓기거나 한정된 시간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적절히 통제할 필요가 있으며 목표성취를 위해 시간사용을 적절히 통제함으로써 시간낭비를 줄이고, 주어진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시간관리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Strober와 Weinberg(1980)는 취업주부가 경제적으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관리행동을 취업주부가 비취업주부보다 더 많이 사용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5가지 시간관리행동의 전략을 들고 있다. 첫째, 가정생산의 양과 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을 고용인, 남편 또는 자녀의 노동력으로 대체하는 방법, 둘째, 가정생산의 양과 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본재 기기로 대체하는 방법, 셋째, 가정생산의 양을 줄이고 질을 낮추거나 자신의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넷째, 자원봉사나 지역사회활동에 할당하는 시간을 줄이는 방법, 다섯째, 여가나 수면에 할당하는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다.

한편 한경미(1991)의 연구에 의하면 취업주부의 75% 이상이 자주 시간에 쫓기고 시간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취업주부가 시간갈등을 줄이고 가사노동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간관리전략을 익히고 실생활에 적용함으로써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가사노동 시간관리전략의 하위영역은 연구자들에 의해 차이를 보이는데, 채옥희(1995)는 가족성원간의

분담화, 가사노동의 계통화, 가사노동의 간소화, 가사노동 사회화, 가사노동 기계화로, 조성은·문숙재(1991)는 가족원간의 분담, 가사노동의 기계화, 가사노동재화의 사회화, 가사노동서비스의 사회화, 가사노동 수행표준의 조정, 가사노동 수행방식의 효율화, 여가 및 수면시간분배의 조정으로 구분짓고 있다. 그리고 전문직 취업주부의 역할갈등에 대해 살피본 구혜령(1991)은 갈등대처전략을 표준낮추기, 구획화, 계획하기, 정서적 행동으로 분류하였다.

시간관리전략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주부의 교육수준, 가계소득, 성역할태도, 취업여부, 직업지위 등이 시간관리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로 나타났다. 우선 교육수준 및 가계소득은 시간관리전략의 사용과 정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주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총소득이 많을수록 시간관리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오경희, 1995; 윤혜리, 1995; 이미선·이정우, 1997; 이승미, 1989; 이정숙·이정우, 1995; 조성은·문숙재, 1991). 그리고 성역할태도에 따라 시간관리전략의 사용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진보적인 성역할태도를 지닌 주부일수록 시간관리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미선·이정우, 1997; 조성은·문숙재, 1991). 또한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라서 취업주부가 비취업주부보다 시간관리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였으며(오경희, 1995; 이승미, 1989; 조성은·문숙재, 1991), 직업지위에 따라서는 노동, 생산직보다 전문, 관리직 종사자의 시간관리전략의 사용이 많았다(윤혜리, 1995; 조성은·문숙재, 1991).

2. 재택근무자의 정의 및 특성

미국의 경우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소득취득 활동을 의미하는 용어로는 home-based work, at-home income generation, flexiplace, work-at-home, piece-work, homework, telecommuting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재택근무, 재택노동, 원격근무, 가내근로, SOHO 등 다양하게 불리고 있다(김효정, 1999). 재택근무에 대한 정의는 학자에 따라 다양한데, Horvath(1986)는 소득을 창출하는 가사노동과 서로 상호

교환될 수 있는 것을 재택근무로 보고 있으며, 또한 재정적 측면에서 가정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수단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Pratt(1987)는 재택근무란 “가정 내에서 또는 가정을 근거로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노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Christensen(1988)에 의하면 “재택근무는 근로자의 고용지위와 상관없이 가정 내에서 행해지는 특정유급의 노동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는 것과 상호교환될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 행해진 재택근무에 관한 대규모 연구였던 NE-167 프로젝트에 의하면 “1년 동안 일주일에 적어도 6시간, 또는 계절적 노동인 경우 일년에 적어도 312시간을 가정 내에서 또는 가정으로부터 행하는 유급노동”을 재택근무로 규정짓고 있다. 한편 우리 나라의 경우 박명희·박미혜(1997)는 재택근무를 “가정 내에서 행하는 유급의 소득취득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택근무자는 이와 같은 재택근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Horvath(1986)는 가정에서 그들의 주요 업무를 적어도 일주일에 8시간 이상 노동하는 사람을 재택근무자로 보고 있다. 그리고 Kraut(1988)는 재택근무자를 구별하는데 있어 중요한 4가지 차원으로 1) 가정에서 일하는데 소비하는 시간의 양, 2) 그 일이 근로자의 1차적인 직업의 일부로서 행해지는가의 여부, 3) 그 일이 가정 내에서 또는 가정을 근거로 행해지는가의 여부, 4) 근로자가 노동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지, 아니면 근로자가 가족기업의 노동에 기여하는가의 여부를 제안하였다. 미국의 1990년도 Census of Population and Housing 자료를 이용하여 직장근무자와 재택근무자의 소득차이를 연구한 김효정(1998)의 연구에서는 작업장소의 이동수단에 따라 직장근무자와 재택근무자를 구분하였는데, 만약 “집에서 일을 한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재택근무자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박미혜(1998)는 “가정 내 또는 가정의 인접건물을 기반으로 해서 가사활동과 소득창출 활동을 같은 공간에서 수행하는 사람”을 재택근무자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재택근무와 재택근무자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에서는 주된 업무 또는 제1차적인 업무를 자택 또는 자택을 근거로 하여 소

득창출 활동에 종사하는 자를 재택근무자로, 그리고 직장의 출퇴근을 통해 주된 업무 또는 제1차적인 업무를 수행하여 소득창출을 하는 자를 직장근무자로 정의하고자 한다.

미국의 경우 재택근무가 가정 및 가정관리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우선 재택근무자가 된 이유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Carsky, Dolan과 Free(1991)와 Heck(1992)에 의하면 재택근무는 자녀양육과 소득창출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재택근무는 부모의 역할과 근로자의 역할을 보다 효과적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장점을 제공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Costello(1988)는 기혼여성으로 하여금 1) 가정에서의 역할과 소득창출의 역할을 병행할 수 있게 해주고 2) 직접적인 관리의 감독으로부터 자유롭고 3) 식비, 교통비, 의복비, 탁아비의 절감을 가져오고 4) 자녀 및 다른 가족구성원을 돌보는 동안에 노동 시장에 머무를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1992년에 행해진 NE-167 프로젝트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재택근무를 통한 금전적인 보상이외에도 재택근무가 다른 취업자들에 비해 교통비 지출이 적고 자녀비용 및 의복구입 비용 등에 적게 지출함으로써 부가적인 보상을 얻을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Stafford et als., 1992). 재택근무가 제공하는 장점으로는 융통성(40.7%), 가족돌보기(32.9%), 시간 절약(9.7%) 순으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단점으로는 일을 떠날 수가 없다(21.3%), 가정의 일로 인해 작업이 방해받는다(12.8%), 일과 가정이 상충된다(11.8%)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Heck(1992)은 자녀가 재택근무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18세 이하의 자녀 존재는 재택근무에 참여하는 시간을 1년간 407시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세 미만 자녀의 존재는 자영재택근무자가 될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택근무와 행해진 우리 나라 대부분의 연구는 재택근무의 개념적인 부분에 치중되어 있고 실증적인 연구는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의 특성에 따른 관리행동과 소득, 생활만족에 대한 분석에 관심을 둔 박미

해(1998)의 논문만 있을 뿐이다. 이 논문에 의하면 재택근무자의 생활만족은 재택근무자의 개인/가계특성, 업무특성, 업무환경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자녀양육이 재택근무의 큰 동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택근무자와 직장근무자를 비교해 보았을 때 소득수준은 재택근무자가 직장근무자에 비해 낮았으나 가족생활만족과 시간사용만족은 재택근무자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으며, 이 연구문제를 위해 설정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연구문제 1]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와 직장근무자의 가사노동 시간관리전략의 일반적인 경향은 각각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와 직장근무자의 가사노동 시간관리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각각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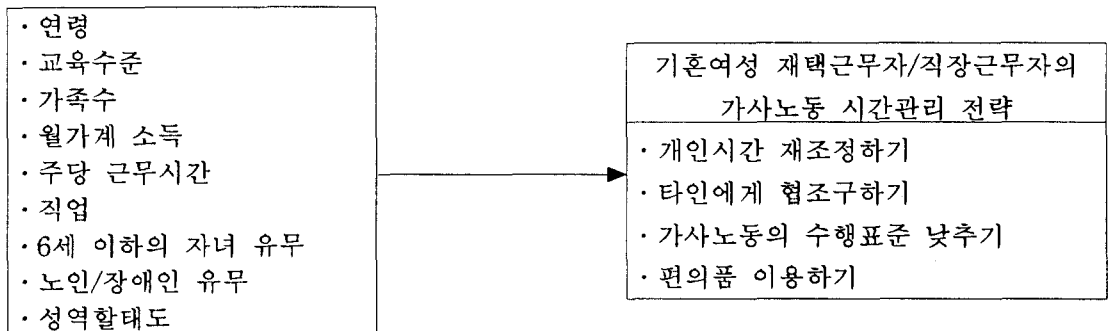
2. 조사도구

본 연구는 설문지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가사노동

시간관리전략, 성역할태도,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각각의 문항은 Stafford 등(1992), 문영표(1990), 박미혜(1998), 조성은·문숙재(1991), 한경미(1991) 등의 여러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척도별 타당도는 전공자의 검사를 받았고 해당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Alpha를 사용하였다.

1) 가사노동 시간관리전략

취업주부가 일과 가사를 수행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시간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개인시간 재조정하기, 타인에게 협조구하기, 가사노동의 수행표준 낮추기, 편의품 이용하기의 4부분으로 구성되었다. 개인시간 재조정하기는 수면시간 줄이기, 가족과 보내는 시간 줄이기, 가사일에 할애하는 시간줄이기, 여가활동 등의 사회적 활동 줄이기의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타인에게 협조구하기는 가족에게 부탁하기, 파출부나 가정부 고용하기의 2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수행표준 낮추기는 가사일의 달성정도에 대한 기대수준 낮추기의 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편의품 이용하기는 시장에 나와있는 상품으로 가사일 대체하기의 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각각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Likert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재택근무자와 직장근무자의 이들 문항에 대한 신뢰도 계수는 <표 1>과 같이 .60 이상으로 나타나서 비교적 신뢰할만한



<그림 1> 연구모형

〈표 1〉 척도별 신뢰도 계수

척도	신뢰도 계수	
	기혼여성 재택근무자 (N=165)	기혼여성 직장근무자 (N=292)
가사노동 시간관리전략		
개인시간 재조정하기	.746	.834
타인에게 협조구하기	.611	.653
성역할태도	.810	.829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2) 성역할태도

성역할태도 척도는 '집안의 중요한 결정은 남편이 해야 한다' '어린 자녀가 있는 주부는 직업 또는 사회활동은 하지 않아야 한다' 등 직업에 대한 여성의 태도, 가정 내에서 부부의 역할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17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1점에서 '전적으로 동의한다' 5점까지 Likert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17개 문항의 합계점수가 적을수록 전통적인 태도를, 그리고 합계점수가 많을수록 진보적인 태도를 나타낸다. 이 척도에 대한 신뢰도 계수는 기혼여성 재택근무자가 .81, 기혼여성 직장근무자가 .83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3.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부산 및 김해, 마산 등 경남에 거주하는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와 직장근무자를 대상으로 하여 표본을 수집하였다. 본조사에 앞서 재택근무자와 직장근무자 각각 20명을 대상으로 하여 1999년 6월 15일부터 22일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하여 일부분항을 수정, 보완하여 1999년 9월 15일부터 11월 13일까지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재택근무자의 경우 놀이방 운영, 소매업 등은 임의 표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번역이나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은 눈덩이표집(snow sampling)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직장근무자는 재택근무자와의 비교를 위해 재택근무자와 유사한 직업의 회사

담당자에게 협조를 구한 후 훈련된 조사원 3명이 설문조사를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배부된 설문지는 여성 재택근무자 250부, 여성 직장근무자 500부이었으며, 이 중에서 여성 재택근무자는 242부, 여성 직장근무자는 497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다. 회수된 설문지 중 부실기재라고 판단되는 설문지를 제외하고, 또한 본 연구를 위해 배우자가 없는 기혼여성을 제외하여, 기혼여성 재택근무자 165부와 직장근무자 292부가 최종분석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4.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SPSS/PC+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설문지에 있는 척도의 신뢰도검증을 위하여 Cronbach's Alpha 계수를 사용하였고,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와 직장근무자의 가사노동 시간사용전략의 일반적인 경향을 비교하기 위하여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가사노동 시간사용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분석과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Pearson의 상관분석 결과 독립변수들간의 상관계수가 .6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회귀분석에서 기혼여성의 교육수준(고졸 이하=0, 전문대졸 이상=1), 직업(비전문직=0, 전문직=1), 6세 이하의 자녀 유무(없음=0, 있음=1), 노인/장애인의 유무(없음=0, 있음=1)는 가변수로 처리하였고 다른 변수들은 원점수를 이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조사대상자인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와 직장근무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2>와 같다. 연령별로 보면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의 평균 연령은 37세, 기혼여성 직장근무자의 평균 연령은 36세이었으며, 두 집단 모두 30대가 가장 많이 표집되었다.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전문대졸 이상의 비율이 기혼여성 재택근무자는 46.7%, 직장근무자가 23.6%로, 직장근무자에 비해 재택근무자의 교육수준이 높았다. 직업별로 보면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변 수	집 단	기혼여성 재택근무자(N=165)	기혼여성 직장근무자(N=292)
		빈도(%)	빈도(%)
연령	20~29세	6(3.6)	67(22.9)
	30~39세	114(69.1)	157(53.8)
	40~49세	34(20.6)	58(19.9)
	50세 이상	11(6.7)	10(3.4)
	평균 표준편차	37.0 6.92	35.76 6.45
교육수준	고졸 이하	88(53.3)	223(76.4)
	전문대졸 이상	77(46.7)	69(23.6)
직업	비전문직	67(40.6)	142(48.7)
	전문직	98(59.4)	150(51.3)
가족수	2명	12(7.3)	59(20.2)
	3명	54(32.7)	104(35.6)
	4명	91(55.2)	93(31.8)
	5명 이상	8(4.8)	36(12.4)
	평균 표준편차	3.62 .82	3.41 1.05
주당 근무시간	40시간 이하	105(63.6)	70(24.0)
	41시간~48시간 이하	13(7.9)	114(39.0)
	49시간~56시간 이하	26(15.8)	45(15.4)
	57시간 이상	21(12.7)	63(21.6)
	평균 표준편차	33.42 20.28	47.47 14.99
월가계소득	100만원 이하	14(8.5)	12(4.1)
	101만원~200만원 이하	46(27.9)	53(18.2)
	201만원~300만원 이하	82(49.7)	115(39.4)
	301만원~400만원 이하	16(9.7)	73(25.0)
	401만원 이상	7(4.2)	39(13.3)
	평균 표준편차	2,345,939.39 912,231.85	3,249,863.01 1,287,942.55
6세 이하의 자녀 유무	없음	123(74.5)	262(89.7)
	있음	42(25.5)	30(10.3)
노인/장애인의 유무	없음	154(93.3)	261(89.4)
	있음	11(6.7)	31(10.6)
성역할태도	평균	45.53	42.29
	표준편차	8.34	10.13

번역가, 컴퓨터 프로그래머, 방송모니터, 약사, 보험설계사 등은 전문직으로, 소매업 운영자 및 판매점원 등은 비전문직으로 구분하였는데, 기혼여성 직장근무자의 경우 전문직과 비전문직이 비슷하게 표집되었으나, 기혼여성 재택근무자는 비전문직에 비해 전문직이 많이 표집되었다. 한편 가족수는 두 집단 간에 큰 차이가 없었으며, 주당 근무시간과 월가계소득은 기혼여성 직장근무자의 평균값이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의 경우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비율이 직장근무자에 비해 많았으며, 가정 내에서 돌봐야 하는 노인이나 장애인은 재택근무자에 비해 직장근무자의 가정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역할태도의 평균값은 기혼여성 직장근무자가 42.29, 재택근무자가 45.53으로 재택근무자가 직장근무자에 비해 진보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2.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와 직장근무자의 가사노동 시간관리전략의 일반적인 경향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와 직장근무자의 가사노동 시간관리전략의 일반적인 경향 및 이들의 평균점수에 대한 t 검증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가사노동 시간관리전략의 이용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개인시간 재조정하기와 타인에게 협조구하기의 시간관리전략을 5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가사노동의 수행표준 낮추기와 편의품 이용하기를 비교했을 때, 취업형태와 관계없이 기혼여성은 가사노동 수행표준 낮추기의 전략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타인에게 협조구하기의 전략은 가장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시간관리전략을 취업형태에 따라 비교해보았을 때 우선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와 직장근무자의 개인시간 재조정하기의 평균값은 3.20과 3.11로, t 검증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혼여성 재택근무자나 직장근무자는 수면시간을 줄이거나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줄이는 것과 같은 방법을 통한 시간관리전략의 이용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타인에게 협조구하기의 경우 재택근무자의 평균값은 2.48, 직장근무자의 경우 2.12로 재택근무자의 평균값이 직장근무자의 평균값에 비해 높았으며 이들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혼여성 재택근무자는 직장근무자에 비해 가족에게 가사일을 부탁하거나 파출부를 고용하는 등의 타인에게 협조를 구하는 시간관리전략을 좀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와 직장근무자의 가사노동 시간관리전략에 대한 t 검증

가사노동 시간관리전략	통계치	기혼여성 재택근무자 (N=165)	기혼여성 직장근무자 (N=292)	t-value
개인시간 재조정하기 ^{a)}	평균값	3.203	3.106	1.31
	표준편차	.623	.957	
타인에게 협조구하기 ^{a)}	평균값	2.479	2.118	5.08***
	표준편차	.714	.753	
가사노동의 수행표준 낮추기	평균값	3.497	3.308	2.06*
	표준편차	.721	1.236	
편의품 이용하기	평균값	2.806	2.983	-1.59
	표준편차	1.087	.073	

* p<.05 *** p<.001

^{a)} 5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임.

또한 가사노동의 수행표준 낮추기의 평균값은 재택근무자가 3.50, 직장근무자가 3.31이었으며, t 검정 결과 이들 평균값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혼여성 재택근무자가 직장근무자에 비해 가사노동에 대한 표준을 낮춤으로써 가사노동 수행 중에 일어나는 시간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편의품 이용하기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기혼여성 재택근무자는 2.81, 직장근무자는 2.98로,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에 비해 기혼여성 직장근무자의 값이 약간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와 직장근무자의 가사노동 시간관리전략에 대한 일반적인 경향을 요약해보면, 직장근무자에 비해 재택근무자가 타인에게 협조구하거나 가사노동에 대한 수행표준 낮추기 등의 시간관리 전략을 많이 이용함으로써 가사노동의 시간갈등을 해결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3.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와 직장근무자의 가사노동 시간관리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제변수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와 직장근무자의 가사노동 시간관리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보기 위해 중회귀분석을 한 결과가 <표 4>부터 <표 7>까지 제시되어 있다. <표 4>는 개인시간 재조정하기에 대한 중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의 경우 직업, 교육수준, 성역할태도, 가족수 순으로 유의하였고,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33%로 나타났다. 즉 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 비전문직 종사자에 비해 개인시간 재조정하기의 시간관리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수준이 높고, 진보적인 성역할태도를 지니고 있으며, 가족수가 많을수록 개인시간 재조정을 통한 시간전략을 많이 사용하였다.

기혼여성 직장근무자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 직업, 노인/장애인 유무, 교육수준 순으로 개인시간 재조정하기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들 변수는 19%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즉 주당 근무시간이 길고 교육수준이 높으며, 가정 내 노인이나 장애인이 있는 경우 개인

시간을 재조정하는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비전문직 종사자에 비해 전문직 종사자는 개인시간 재조정하기의 시간관리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형태와 관계없이 교육수준은 기혼여성의 시간관리전략에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의 결과(이승미, 1989; 조성은·문순재, 1991)와 일치하는 것으로 기혼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시간을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하여 취업에 따른 부족한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두 집단에게 있어 직업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문직 종사자일수록 교육수준이 높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시간 재조정하기의 시간관리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타인에게 협조구하기의 중회귀분석에 대한 결과는 <표 5>에 제시되고 있는데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의 경우 직업, 성역할태도, 교육수준, 가족수, 6세 이하의 자녀 유무 순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으며,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28%이었다. 즉 전문직 종사자는 비전문직 종사자에 비해 가족원이나 파출부에게 가사노동의 협조를 많이 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보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지고 있거나 교육수준이 높으며 가족수가 많거나 가정 내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타인에게 협조구하기의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혼여성 직장근무자의 경우, 성역할태도, 6세 이하의 자녀 유무, 주당 근무시간, 노인/장애인 유무가 유의한 변수이었고 14%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즉 기혼여성 직장근무자가 진보적인 성역할태도의 경향을 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고, 주당 근무시간이 많은 경우, 그리고 가정 내에 노인이나 장애인이 있는 경우 타인에게 협력구하기의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형태와 관계없이 성역할태도는 타인에게 협력구하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나타나서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지닐수록 타인에게 협력구하기의 전략을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표 4〉 개인시간 재조정하기에 대한 중회귀분석

독립변수	기혼여성 재택근무자 (N=165)		기혼여성 직장근무자 (N=292)	
	b	β	b	β
연령	.032	.089	.012	.021
교육수준 ^{a)}	1.544	.310**	1.225	.136*
가족수	.631	.208*	.252	.072
월가계소득	-9.719E-09	-.004	1.275E-07	.107
주당 근무시간	.014	.112	.063	.248***
직업 ^{a)}	1.954	.387***	1.600	.209**
6세 이하의 자녀 유무 ^{a)}	1.493	.150	1.493	.119
노인/장애인 유무 ^{a)}	.846	.149	1.740	.136*
성역할태도	.070	.237**	-.048	-.127
상수	9.891		9.498	
표준화된 R ²	.327		.190	
F값	9.865***		8.593***	

*p<.05 **p<.01 ***p<.001

^{a)} 가변수로 처리되었음.

〈표 5〉 타인에게 협조구하기에 대한 중회귀분석

독립변수	기혼여성 재택근무자 (N=165)		기혼여성 직장근무자 (N=292)	
	b	β	b	β
연령	-.002	-.009	-.022	-.096
교육수준 ^{a)}	.963	.337**	-.425	-.120
가족수	.559	.321**	.206	.144
월가계소득	-2.727E-07	-.174	-2.140E-08	-.046
주당 근무시간	-.007	-.099	.019	.190**
직업 ^{a)}	1.897	.654***	.353	.117
6세 이하의 자녀 유무 ^{a)}	.799	.224**	1.065	.215**
노인/장애인 유무 ^{a)}	-.778	-.136	-.632	-.129*
성역할태도	.058	.340***	.053	.353***
상수	-.097		1.375	
표준화된 R ²	.278		.141	
F값	8.008***		6.313***	

*p<.05 **p<.01 ***p<.001

^{a)} 가변수로 처리되었음.

〈표 6〉 가사노동의 수행표준 낮추기에 대한 중회귀분석

독립변수	기혼여성 재택근무자 (N=165)		기혼여성 직장근무자 (N=292)	
	b	β	b	β
연령	.039	.377***	-.002	-.012
교육수준 ^{a)}	.404	.280**	.436	.150*
가족수	.087	.099	.189	.161***
월가계소득	4.533E-08	.057	-2.093E-08	-.054
주당 근무시간	.005	.144*	.026	.319***
직업 ^{a)}	.550	.376***	.592	.240**
6세 이하의 자녀 유무 ^{a)}	.028	.017	-.027	-.007
노인/장애인 유무 ^{a)}	.729	.253**	.810	.202***
성역할태도	-.006	-.068	.025	.208***
상수	1.487		2.520	
표준화된 R ²	.353		.286	
F값	10.920***		13.952***	

*p<.05 **p<.01 ***p<.001

^{a)} 가변수로 처리되었음.

〈표 7〉 편의품 이용하기에 대한 중회귀분석

독립변수	기혼여성 재택근무자 (N=165)		기혼여성 직장근무자 (N=292)	
	b	β	b	β
연령	.036	.228*	-.002	-.009
교육수준 ^{a)}	.774	.356***	-.382	-.131
가족수	-.201	-.152	.169	.144
월가계소득	-3.567E-08	-.030	-2.934E-08	-.076
주당 근무시간	-.004	-.074	.012	.145*
직업 ^{a)}	-.627	-.284**	.085	.034
6세 이하의 자녀 유무 ^{a)}	.593	.236**	-.195	-.048
노인/장애인 유무 ^{a)}	2.246	.517***	.522	.130*
성역할태도	.011	.086	.021	.168*
상수	2.346		1.242	
표준화된 R ²	.320		.035	
F값	9.559***		2.161*	

*p<.05 **p<.01 ***p<.001

^{a)} 가변수로 처리되었음.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지닌 경우 가사노동의 일차적인 책임은 여성에게 있다는 의식을 고수하기 때문에 다른 가족원이나 파출부 등의 협력자를 통해 시간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은 덜 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두 집단 모두 타인에게 협력을 구하는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가사노동시간의 증가를 가져와 취업주부가 제한된 시간 내에 가사노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파출부를 고용하거나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로부터의 도움을 많이 받는 것으로 보여진다.

〈표 6〉은 가사노동 수행표준 낮추기에 대한 중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의 경우 연령, 직업, 교육수준, 노인/장애인의 유무, 주당 근무시간 순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변수들은 35%의 설명력을 보여주었다. 즉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의 연령이 많고 전문직에 종사하며 교육수준이 높고 가정 내 노인이거나 장애인이 있으며 주당 근무시간이 길수록 가사노동의 수행표준을 낮춤으로써 시간갈등을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여성 직장근무자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 직업, 성역할태도, 노인/장애인 유무, 가족수, 교육수준 순으로 유의하였고,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29%이었다. 즉 주당 근무시간이 길고 진보적인 성역할태도를 지니고 있으며, 가정 내 돌봐야 하는 노인, 장애인이 있고 가족수가 많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사노동의 수행표준 낮추기의 전략을 많이 이용하였다. 그리고 전문직 종사자는 비전문직 종사자에 비해 수행표준 낮추기의 시간관리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당 근무시간은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와 직장근무자에게 있어 모두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는데, 이는 근무시간이 길수록 가사일에 대한 수행표준을 낮춤으로써 취업으로 인한 당면한 시간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두 집단에게 있어 가정 내 돌봐야 하는 노인이나 장애인이 있는 경우 수행표준 낮추기의 시간관리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노인이나 장애인을 돌보는 것이 가사노동시간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어 취업주부

의 경우 가사노동의 수행표준을 낮춤으로써 업무와 가사노동의 조화를 피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편의품 이용하기에 대한 중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의 경우 노인/장애인 유무, 교육수준, 직업, 6세 이하의 자녀 유무, 연령 순으로 유의하였고,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32%이었다. 즉 가정 내에서 돌봐야 하는 노인이나 장애인이 있고, 교육수준이 높으며 비전문직에 종사하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그리고 연령이 많은 재택근무자의 경우에 편의품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여성 직장근무자의 경우에는 성역할태도, 주당 근무시간, 노인/장애인 유무 순으로 유의하였고, 4%의 설명력을 보여주었다. 즉 기혼여성 직장근무자가 진보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주당 근무시간이 길고 가정 내 노인이나 장애인이 있는 경우 편의품을 많이 이용함으로써 시간갈등을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이나 장애인의 유무는 두 집단에게 있어 공통적으로 유의했는데, 이는 노인이나 장애인을 돌보기 위해 증가하는 가사노동을 시장에 나와있는 편의품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V. 결 론

본 연구는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와 직장근무자의 가사노동 시간관리전략의 실태를 파악하고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알아보기 위하여 부산 및 경남지역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빈도분석, t 검정,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로부터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와 직장근무자의 가사노동 시간관리전략을 비교해 보았을 때, 기혼여성 직장근무자에 비해 재택근무자가 타인에게 협조구하기, 가사노동의 수행표준 낮추기의 시간관리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와 직장근무자의 가사노동 시간관리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본 결과, 재택근무자에게 있어서 교육수준과 직업은 개인시간 재조정하기, 타인에게 협조구하기, 가사노동

의 수행표준 낮추기, 편의품 이용하기의 4가지 시간관리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한편 기혼여성 직장근무자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 노인/장애인 유무가 4가지의 시간관리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기혼여성 직장근무자에 비해 재택근무자가 타인에게 협조구하기, 가사노동의 수행표준 낮추기의 시간관리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재택근무의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재택근무는 시간사용의 융통성을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린 자녀, 가사에 의해 업무의 방해가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직장근무자에 비해 재택근무자는 더 많은 시간관리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가정 내에서 가정일과 업무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재택근무자가 시간제약을 경험하게 되면 취업주부 자신의 일과 가정의 만족 및 가족구성원의 심리적 안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시간사용에 있어서 보다 많은 관리와 계획을 함으로써 가정생활과 직업활동의 시간과 공간의 중복으로 인한 문제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와 직장근무자는 4가지의 가사노동 시간관리전략 중 가사노동의 수행표준 낮추기를 가장 많이 사용한 반면, 타인에게 협조구하기를 가장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사일에 대한 기대수준을 낮춤으로써 개인적인 수준에서 일을 완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보다 가사노동이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가족원들이 가사노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즉 취업주부가 주어진 시간 안에 많은 활동을 하기 위해 가사노동에 대한 표준을 낮춤으로써, 꼭 가정 내에서 제 때 이루어져야 할 가사노동과정을 단축하거나 생략하는 경우 가족원의 건강을 해치거나 가정생활이 제대로 영위되기 어렵기 때문에, 취업주부는 가족원들이 가사노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가사노동의 분담 및 협조를 증가시키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비전문직에 비해 전문직에 종사하는 기혼여

성의 경우 개인시간 재조정하기, 타인에게 협조구하기, 가사노동 수행표준 낮추기의 시간관리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한편, 편의품 이용하기는 전문직에 비해 비전문직 종사자가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문직 종사자가 비전문직 종사자에 비해 시간관리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이승미, 1989; 조성은, 문숙재, 1991; 유혜리, 1995)와 일치하고 있다. 한편 편의품 이용정도에 대한 선행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비전문직 종사자에 비해 전문직 종사자가 편의품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이승미, 1989), 본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 가지 문항만을 통해 편의품 이용정도를 살펴보았기 때문에 후속연구에서는 편의품 이용문항을 보다 세분화하여 편의품 이용하기의 시간관리전략에 있어서 직업의 영향력을 정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끝으로 본 연구는 부산 및 경남지역의 취업주부를 대상으로 하여 수행되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가사노동 시간관리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시간제약에 대한 지각정도나 업무시간의 융통성 등을 고려하지 않았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이들 변수들을 포함시켜 그 영향력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구혜령(1991). 전문직 취업주부의 역할갈등과 갈등대처전략.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효정(1996). A study for the factors affecting income among home-based workers in the U.S.. *인제논총* 12(2), 685-717.
- 김효정(1998). A study for the effect of sex on choice of occupation and work location and on earnings: Comparison of on-site workers with home-based workers in the U.S.. *대한가정학회지* 36(7), 123-141.
- 김효정(1999). 재택근무의 고찰 및 가정학의 과제. *인문사회과학논총* 6(1), 109-123.
- 문영표(1990). 도시주부의 성역할태도 및 역할에 관한

-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명희 · 박미혜(1997). 재택근무의 고찰과 가정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3), 1-13.
- 박미혜(1998).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의 특성에 따른 관리행동과 생활만족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경희(1995). 청주시 주부의 생활시간사용과 관리전략.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3), 74-87.
- 윤혜리(1995). 취업주부의 시간관리전략과 심리적 복지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선 · 이정우(1997). 전문 · 사무직 취업주부의 가사노동 관리방안 및 가사노동 관리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5(2), 201-216.
- 이승미(1989). 주부가 지각한 시간제약과 가사노동의 수행방안.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숙 · 이정우(1995). 취업주부의 시간관리전략이 가정관리행동과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3(4), 129-147.
- 장운옥(1992). 교직주부에 있어서 가정생활주기와 가사노동 가치인식이 시간제약 지각과 역할갈등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0(3), 325-345.
- 조성은 · 문숙재(1991). 주부의 가사노동 시간관리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1), 95-112.
- 한경미(1991). 취업주부의 생활시간사용과 시간갈등.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Becker, G. S.(1965). A theory of allocation of time. *The Economic Journal* 75, 493-517.
- Carsky, M. L., Dolan, E. M., & Free, R. K.(1991). An integrated model of homebased work effects on family quality of life.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23, 27-49.
- Christensen, K. E.(1988). *The new era of home-based work: Directions and policies*. Boulder, CO: Westview.
- Costello, C. B.(1988). Clerical home-based work: A case study of work and family. In K. E. Christensen(Ed.), *The new era of home-based work: Directions and policies*, Boulder, CO: Westview.
- Heck, R. K.(1992). The effects of children on the major dimensions of home-based employment.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13(3), 315-346.
- Horvath, F. W.(1986). Work at home: Finding from CPS. *Monthly Labor Review* 109(11), 31-35.
- Kraut, R. E.(1988). Homework: What is it and who does it? In K. E. Christensen(Ed.), *The new era of home-based work: Directions and policies*, Boulder, CO: Westview.
- Pratt, J. H.(1987). Methodological problems in surveying the home-based workforce.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31, 49-60.
- Stafford, K., Winter, M., Duncan, K., & Genalo, M. A.(1992). Studying at-home income generation: Issues and methods.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13(2), 139-158.
- Strober, M. H., & Weinberg, C. B.(1980). Strategies used by working and nonworking wives to reduce time pressure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6, 338-348.